

## 선출제 논의 어디로…대행 체제 불가피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가 2차 결렬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지난 9월 17일 조인원 총장의 차기 총장 선출제 관련 공식 발표를 둘러싼 학내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우리 학교 구성원 4주체가 모두 학교법 인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가 학생·교수·직원·동문과 법인·대학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4선 불출마 의사자를 재차 밝힌 조인원 총장은 지난 9월 17일 총장 선출제 논의를 앞으로 법인이 아닌 대학이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법인과 우리학교 구성원 4주체 대표들은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총장 선출제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차기 총장 선출제 관련 언급을 일제 피하던 조인원 총장이 이와 같은 입장을 구성원에게 밝힌 것은 올해 11월 23일로 예정된 임기 만료를 불과 68일 앞둔 시점이다.

법인 공영일 이사장은 지난 9월 10일, 조인원 총장과의 사전 면담에서 차기 총장 선출제 문제를 대학이 직접 맡겠다는 조인원 총장의

재개 10일 만에 2차 결렬 사태로 치달은 총장 선출제 논의 법인 “앞으로 대학이 나설 것”vs 구성원 “사실상 일방파기”  
조 총장 임기 말료 두 달 앞에서 원점 돌아간 총장 선출제 논의  
총장 공석 위기론 확산 … 1차 권한 대행은 서울캠 부총장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9월 13일 구성원 대표단과의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에서 공영일 이사장은 더 이상 우리학교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이사장이 아니다.

공영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법인 조여원 상임이사와 법인총장선임소위원회 박찬범, 유명철, 장현수 이사 등 모두 5명의 법인 이사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사퇴 데드라인을 지난달 20일로 못 박았으나 공영일 이사장은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법인은 공영일 이사장의 사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 측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의 역할은 앞으로 대학 당국에 있지만 총장 선출제 개정 권한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공석은 차기 총장 선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인원 총장의 9·17 선언과 관련

동성명을 통해 “총장 선출제 논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공영일 이사장은 더 이상 우리학교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이사장이 아니다. 공영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법인 조여원 상임이사와 법인총장선임소위원회 박찬범, 유명철, 장현수 이사 등 모두 5명의 법인 이사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사퇴 데드라인을 지난달 20일로 못 박았으나 공영일 이사장은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법인은 공영일 이사장의 사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 측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의 역할은 앞으로 대학 당국에 있지만 총장 선출제 개정 권한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공석은 차기 총장 선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경희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장 공석 시 서울캠퍼스 부총장이 일차적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해서는 “8월까지는 조인원 총장의 4선 문제가 결부돼 있어 총장 선출제 논의에 대학 당국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 총장이 4선 불출마 의사자를 명백히 밝히면서 대학 당국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법인과 구성원 대표의 지난 논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과행을 거듭하자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 총장 선출제 개정 무산으로 부상했던 총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9월 말로 유력하게 점쳐졌던 총장 선출제 개정 데드라인도 2차 결렬 사태로 무산되자 총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총장 선출제 논의 관계자는 “총장 선출 제도 마련이 자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총장 공석 상황이 명백하다”며 “이에 따른 권한 대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경희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장 공석 시 서울캠퍼스 부총장이 일차적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 베일 벗은 공대 부속건물 30억 사업비, 19년 말 완공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국제】 공간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과대학(공대)이 부속건물 신축을 자구책으로 내놓았다. 부속건물 신축은 첨단강의실 조성, 토론공간(오픈랩), 휴게실 등 주로 교육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 중이다. 부속건물은 공대 앞 잔디밭 위에 위치하며, 약 3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지하에는 200여 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 1개를 포함하고, 지상 1층은 면적 250 평 내외로 건축될 전망이다. 부속건물이 높아지면 기존 공대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지상 1층의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재정확보와 건설 관련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착공은 2019년 중반에 시작하여 그해 말 완공 예정이다. 공과대학 임성수(기계공학) 학장은 “부속건물은 경희대학교 70주년과 공과대학 50주년을 기념하는 건축물이다”며 “특히 내년 12월이 공과대학 설립 50주년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준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확보는 공대 구성원 및 동문, 외부 기업으로부터 모금활동을 하고, 공대 소유의 자금 일부를 합쳐 확보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모금 활동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대 부속건물의 개념설계는 완료됐고 상세설계 단계를 밟고 있다. 개념설계는 설계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으로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이나 기능 상 간과한 점은 없는가 등을 검토한다. 상세설계는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최적 안을 작성하는 단계를 뜻 한다. 이 단계를 마친 후 건설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거치면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부속건물 신축 계획은 공과대학 교수의회, 동문회, 학생회 등 공대 구성원에게도 공개돼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현재 총장 보고와 대학본부로부터 추진 허락을 받은 상태이다.

부속건물 신축 계획은 지난 2017년 2학기 공과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 임 학장이 직접 제안했다. 그후 건축학과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안건을 완성했다. 건축물 제안과 계획 단계에서 SPACE21의 도움 없이 공과대학 독자적으로 이뤄졌다.

임 학장은 “공과대학은 교육 공간이 열악하고 시설도 너무 오래되어 만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팀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부속건물을 계획하게 됐다”며 건축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임 학장은 “과제 제안했던 신공학관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부속건물의 규모가 너무 작다”

며 “본질적인 공간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건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공학관의 신축은 공식적으로 연기된 상태이다”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재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신공학관 건축은 SPACE21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예정이다.

현재 부속건물의 임시 명칭은 ‘파빌리온’이며 추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후마 암 병원  
10월 5일 개원

지난 5일 진행된 후마니타스 암 병원 개원식을 통해 경희 의료원 임영진 원장은 “암을 넘어선 삶”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물리적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정서적 치료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서연, 양여진 기자 clcl@khu.ac.kr

## “중간고사 언제부터야?”, 궁금한 점 쿠봇에게 물어보세요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Info21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이 도입된 민원응대 서비스인 ‘쿠봇(KHU-BOT)’이 오는 11일부터 공식 오픈한다. 현재 학교 통합로그인센터 우측 하단에 있는 쿠봇 캐릭터를 통해 테스트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앱)도 테스트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개시된 쿠봇 1단계 사업은 교직원 위주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쿠봇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다. 정보처는 학생이 학교 각 부처

에 자주 묻는 질문이나 민원에 대해 보다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자 쿠봇을 만들었다.

쿠봇은 정보처가 입력해둔 질문과 답을 스스로 생각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찾아준다. 현재 정보처는 부서별로 많이 받는 질문을 받아 수시로 쿠봇에 입력해두며, 사용자의 질문과 쿠봇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중이다.

쿠봇은 건물의 위치, 편의시설, 버스정보, 학교 주변의 식당이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에도 답변한다. 이에 더해 쿠봇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업무 시간 외에도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은 음성 채팅 서비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쿠봇은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일상 생활 언어를 형태 분석, 의미 분석, 대화 분석 등을 통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과대학 어떻게 가야해?”, “공과대학 어디로 가?”, “공과대학 가는 길 알려줘.”와 같은 똑같은 질문의 여러 형태를 이해하고 같은 질문으로 받아들여 답을 한다.

쿠봇과 같은 인공지능 민원응대 서비스는 우리학교가 최초는 아니다.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 성균

관대의 ‘킹고’ 단국대의 ‘다나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쿠봇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알파고형 인공지능이다. 예를 들어, 쿠봇에 ‘공과대학’이라고 질문하면 공과대학으로 가는 길에 대한 답변을 줄지, 공과대학에 대한 설명을 줄지, 공과대학 학생식당에 대해 설명을 줄지 스스로 생각한다.

정보처 신희정 팀장은 “ку봇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똑똑해지는 성장형 인공지능이다”며 “ку봇을 도와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촉구했다.

## 알림

【정정 보도】 지난 9월 17일 발행된 대학주보 제1638호 1면,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 수업 강사 교체 요구’ 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에 기사를 정정합니다. 대학주보는 시각디자인학과 전 학생회의 자료를 토대로 김형석 교수의 정직처분 사유가 ‘실험실습비 사취’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정계위원회 판결문 확인 결과, ‘실험실습비 사취’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직처분 사유가 ‘실험실습비 사취’라는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부족한 사실 확인으로 인해 당시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사과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린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대학주보는 사실관계 확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강화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문가 칼럼

4차 산업혁명은 청춘의 상상력이다  
최상진(국어국문학) 명예교수 7면

